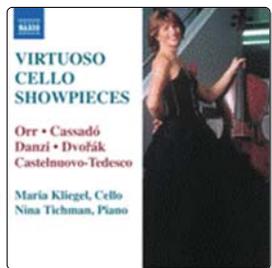




20 YEARS OF CLASSICAL MUSIC

Naxos new release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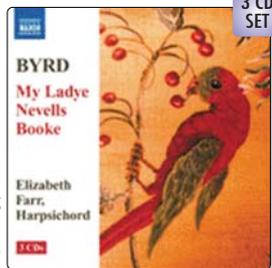
8.557613

비르투오조 첼로 쇼피스
(드보르작, 카사도, 단치 외)
마리아 클리겔(vc)
니나 티치만(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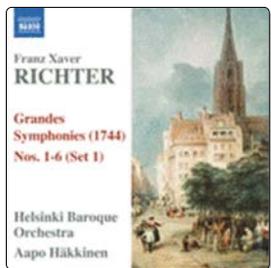
8.570506

브라이언:
교향곡 2번, 축제 팡파르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니 라우



8.570139-41

버드:
마이 레이디 네벨스 북
(My lady Nevelles booke)
엘리자베스 파르 (cemb)



8.557818

리히터:
6개의 그랜드 심포니 (1744)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아포 헤키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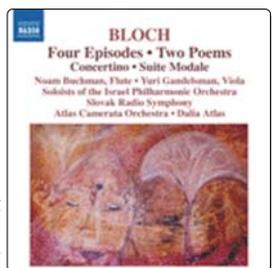
8.55750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개정판)
바이올린협주곡, 관악기 교향곡 외
제니퍼 프라우치(vn)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버트 크래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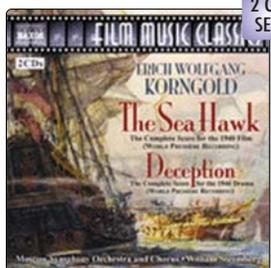
8.570600

마 시옹: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시아오-메이 쿠(vn)
닝 루(pf)



8.570259

블로흐:
4개의 에피소드, 2개의 시,
콘체르티노 외
노암 부흐만(fl)
유리 간델스만(va)
아틀라스 카메라타 외
달리아 아틀라스



8.570110-11

코른골드:
The Sea Hawk, Deception,
첼로협주곡
알렉산더 자고린스키(vc)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윌리엄 스트롬버그



8.559305

포터:
현악사중주 1-4번
아이브즈 현악사중주단



8.559342

버거:
Miracles & Mud,
Eli Eli, Sink or Swim,
Doubles etc
리비아 손(vn)
세인트 로렌스 현악사
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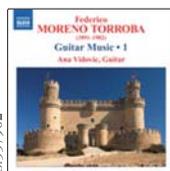
8.570401

**베르크, 힌데미트,
쇤베르크, 하르트만:**
피아노소나타
엘리슨 브류스터
프란체티(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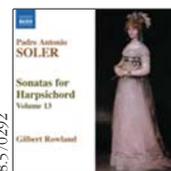
8.570026

투리나:
피아노작품집 Vol.4
(작은 모음곡 1,2 외)
호르디 마소(pf)



8.557902

모레노 토로바:
기타작품집 Vol.1
아나 비도비치(gui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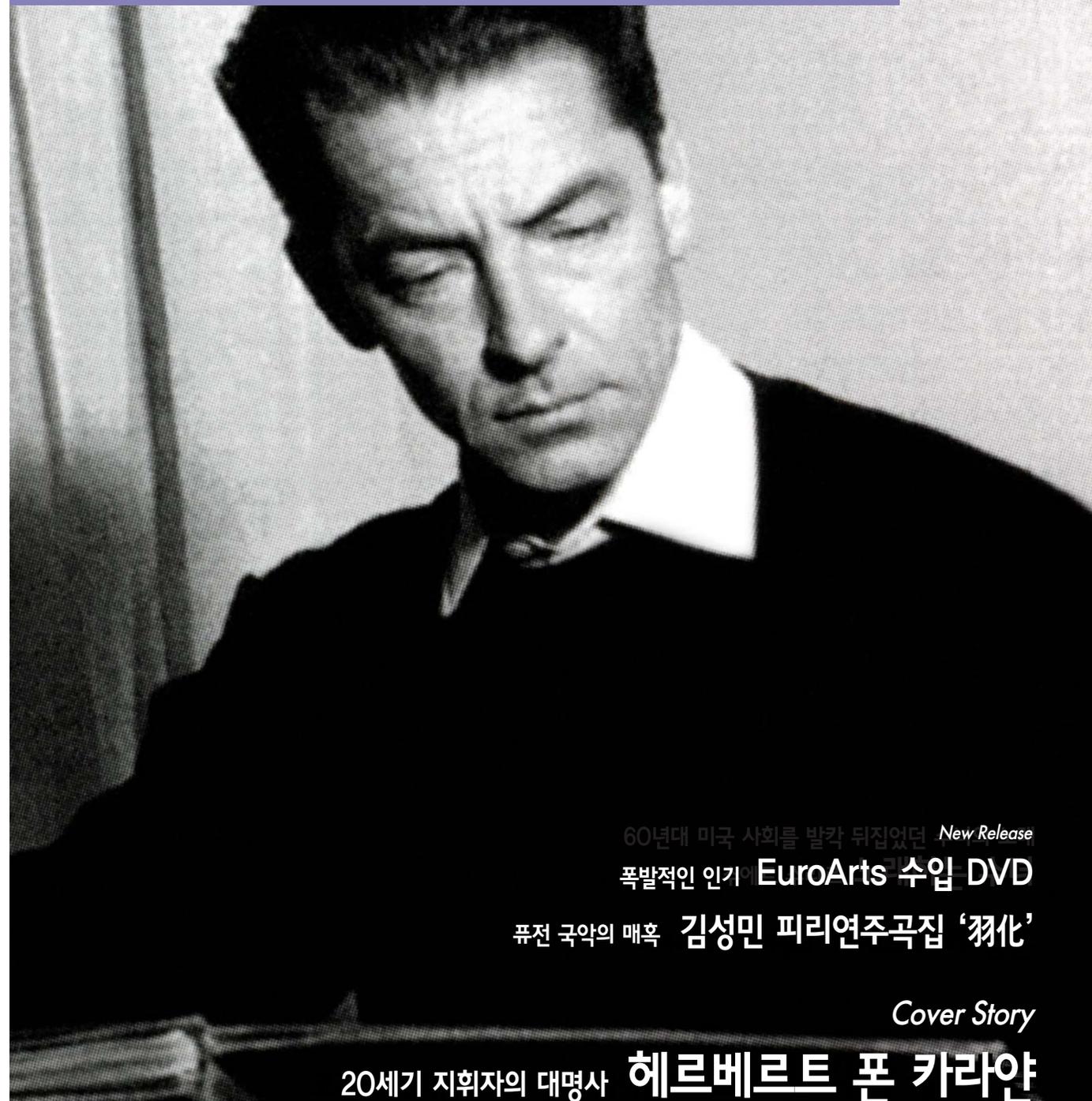
8.570292

솔레르: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Vol.13
길버트 라울랜드(cemb)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August 2007



60년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New Release*

폭발적인 인기 EuroArts 수입 DVD

퓨전 국악의 매혹 김성민 피리연주곡집 '羽化'

Cover Story

20세기 지휘자의 대명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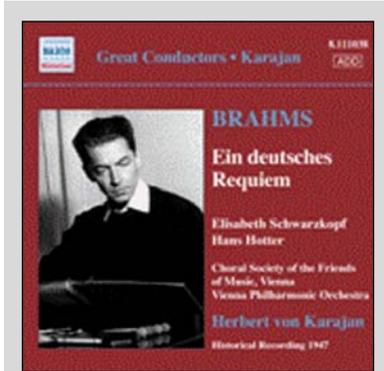
20세기 지휘자의 대명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Herbert von Karajan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1908년 4월 5일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카라얀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카라얀은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데다 음악 천재의 고향산천에서 정기를 받았기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놀라운 음악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카라얀은 세 살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네 살에는 첫 독주회를 열었으며, 열네 살에는 연주여행을 다녔다. 이 정도면 신동 수준이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카라얀은 1916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 진학했고, 이 음악원에서 1926년까지 프란츠 레트빈카(Franz Ledwinka), 프란츠 자우어(Franz Sauer), 그리고 베른하르트 파움가르트너(Bernhard Paumgartner 1887-1971) 선생을 사사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의 파움가르트너 선생은 어느 날 카라얀에게 지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권고했다. 선생의 견해는 카라얀 진로의 방향타가 되었다. 하지만 카라얀이 자신의 내면적 요청에 의해 진정으로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니 때문이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을 졸업한 카라얀은 1926년에 빈 음악원 피아노과에 진학했다. 카라얀은 이때 브루크너의 제자였던 슈알크 선생 밑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음악을 듣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토스카니니 같은 위대한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카라얀은 결국 전공을 피아노에서 지휘로 바꾸게 된다. 아버지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카라얀은 슈알크 선생의 연주뿐만 아니라, 바인가르트너, R.슈트라우스, 푸르트벵글러, 그리고 크라우스 같은 당대 대 지휘자들의 리허설을 보며 생생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카라얀은 1927년에 독일 남부에 있는 울름의 한 콘서트에

서 다른 지휘자 대신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1928년부터는 그곳에서 활동했다. 약 7년간 울름에서 카라얀은 지휘자로서뿐만 아니라 악단의 코치나 합창지휘자로도 일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1930년부터 1934년까지는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지휘자를 위한 여름학교 과정을 열었고, 1935년에는 27세의 나이로 아헨 오페라 하우스의 총감독이 되었다. 부수의 후임이었는데, 그 당시 독일에서 카라얀처럼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연소 총감독이라는 찬사와 주목을 받으며 야심에 찬 경력을 시작하는 카라얀에게 아헨 오페라 하우스는 힘이 넘치는 뛰어난 오케스트라와 300명으로 구성된 시립 합창단을 맡겼다. 당시 시립 합창단은 뛰어난 합창지휘자 빌헬름 피츠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량이 실로 대단했다. 카라얀은 자신의 주변조건을 매우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카라얀은 그 합창단과 오페라 작품을 자주 연주해서 크게 주목받았다.



8.111038
브람스: 독일 레퀴엠 (1947년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한스 호터
빈 악우협회합창단, 빈 필하모닉

1937년에 카라얀은 브루노 발터의 초청으로 빈 국립 오페라에 가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객원 지휘했다. 카라얀의 능력에 반한 빈 국립 오페라는 그가 계속 머물러주기를 바랐지만, 카라얀은 리허설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사양했다. 그 이듬해인 1938년에 그는 한 콘서트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최초로 지휘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 브람스의 『교향곡 4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 단원들의 이때 첫 만남은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종종 회자되는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베를린 필 앞에 다가선 카라얀은 대뜸 특별한 '현악기 리허설'을 요구했다. 한사람 한사람이 그야말로 최고의 베테랑이었던 베를린 단원들은 젊은 지휘자의 당찬 모습에 약간 당혹스러워 했다. 하지만 라벨의 음악에 관한 한 최고의 안목을

갖고 있었던 베를린 필 단원들은 겨우 30세가 되어 가는 젊은 지휘자 카라얀한테 찢찢 매는 상황을 맞았다. 그렇게 준비된 악단의 연주회가 끝났을 때 도이체 알레마이네 차이퉁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젊은 음악 감독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필하모닉 청중을 폭풍으로 몰고 갔다. 왕성한 활력을 보여준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아직 30세가 채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지휘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었다...그날 저녁에 그가 들려준 음악은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청중들도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열렬한 찬사를 보내고 커다란 기대감을 표실했다.”

카라얀은 그 해 가을에 베를린 국립 오페라에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당당하게 지휘했고, 약 3주 후에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무대에 올려 커다란 갈채를 받았다. 베를리니 차이퉁 암 미탁의 음악평론가인 에드윈 판 널(Edwin van Null)은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의 카라얀을 극찬했다. “카라얀은 금세기 지휘계에 가장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람이다. 하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겨우 나이 30세에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진전한 승리와 개인적인 승리를 이룩한 사람은 금세기에 없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카라얀의 지휘활동은 금지되었다. 나치 당원이었던 그는 이탈리아로 잠시 피신했다가 나치의 옷을 벗어 던지고 1947년에 빈에 돌아왔다. 카라얀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가까스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빈에서 푸르트벵글러의 위상이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카라얀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넘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고, 이를 악물고 그 악단을 연마시켜 악단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당당히 맞서게 하였다. 빈에서의 명성이 점차 쌓여가면서 카라얀은 곧 음악 동호인 협회의 징페라인을 지휘하는 영예를 얻었고, 1948년에는 그 합창단의 종신 예술 감독으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이때부터 카라얀은 해마다 콘서트를 열었고, 유럽의 음악 협회와 함께 자주 연주여행을 다녔다. 같은 해 카라얀은 처음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지휘했다. 그리고 1951년에는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마이스터징어』와 『니벨룽의 반지』를 지휘했다. 전자는 바이로이트의 데뷔작이었는데, 카라얀은 이듬해에 그 작품을 한 번 더 지휘했다.

1954년에 위대한 지휘자 푸르트벵글러가 세상을 떠나자 카라얀은 그의 후임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왔다. 이 사건으로 카라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

을 맞게 되었다. 종신직이란 조건으로 그는 베를린 필을 맡았는데, 카라얀도 신의를 지켜 다른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러브콜을 대부분 사양했다. 다만 몇몇 직책은 그로서도 뿌리칠 수 없었다. 1956년부터 빈 국립 오페라의 예술 감독,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1960년까지)을 맡았고, 1957년에는 카를 뵘의 후임으로 빈 국립 오페라의 예술 감독을 맡기도 했다. 또 1967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을 세워 메니저, 무대 감독, 지휘자 역할을 도맡아 했다. 1969년에는 새로 창단된 프랑스의 파리 오케스트라에서 잠시 예술 감독으로 일했다.

경력 초반에 카라얀은 주로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브루크너의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레퍼토리를 더 확장하여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와 바르토크, 시벨리우스 등의 작품들을 연주하여 커다란 갈채를 받았다. 카라얀은 제 2 빈 악파와 말러의 작품까지도 자신의 주요 레퍼토리로 확장시켜나갔는데, 특히 콘서트홀에서 말러 음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었던 일은 그의 의미 있는 공헌 중의 하나였다.

카라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레퍼토리의 명수라고 말한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유명 레퍼토리들에 대해서 카라얀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그가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은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음반이 팬들을 많이 빼앗아가기 전까지 애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반에 속했다. 또 그가 만든 서곡, 전주곡, 간주곡들에 대해 음악 대중들은 늘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우리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베르디의 ‘트라비아타 전주곡’, 오펜바흐의 ‘저승의 오르페우스 서곡’, 주페의 ‘경기병 서곡’, 오펜바흐의 ‘뱃노래’,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 그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한 주옥같은 레퍼토리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어느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해주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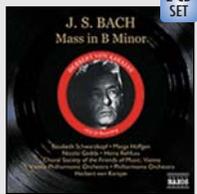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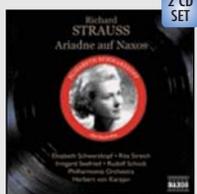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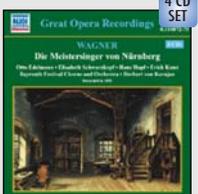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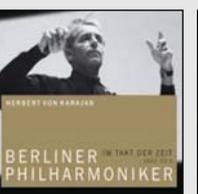
리허설 때 카라얀은 말을 아낀다.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작업은 상당히 신속하게 해내면서도 완벽하게 처리한다. 악곡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엄청나게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는 그의 인내심에는 끝이 없다. 음악 동호인 협회의 징페라인을 처음 맡았을 때 카라얀은 이 합창단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시간 훈련시켰는데, 단원들은 진땀을 다 빼야 했다. 잘츠부르크에서 새로운 오페라 프로덕션을 위해 240시간의 리허설을 썼으며, 1970년 베를린 필하모닉과 연주여행을 가기 위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준비할 때는 리허설 시간이 무려 100시간 이상이

나 되었다.

카라얀이 이른 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분야는 바로 방대한 오페라 녹음이다. 바그너의 작품, 베르디, 푸치니 등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명작들,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많은 녹음을 남겼다. 경력 초반부터 카라얀은 오디오와 비디오가 결합된 기술의 발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TV용으로 수많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담은 영상물을 남겼던 카라얀은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전은 이 시대에 강력한 매체로서 결코 간과하거나 간과될 수 없으며, 음악 필름,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 필름을 제작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필수적인 과업이다.” 사실 카라얀은 텔레비전에 스테레오 사운드를 채택해달라고 주문했던, 그리고 디지털

사운드 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인사 중의 한사람이었다. 카라얀의 첫 디지털 레코딩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였다. 그리고 1982년에 출판된 그의 첫 CD는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을 담은 것이었다. 카라얀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바로 그 이듬해인 1983년에는 몽테 카를로에 레이저 디스크 생산 회사를 설립했다. 기술과 영상매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카라얀에게 오페라 같은 종합예술은 그 재료로 적격이었다. 카라얀은 제피렐리 감독과 함께 196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만든 푸치니의 『라 보엠』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오페라 필름을 만들었다. 레코드 역사상 어떤 지휘자도 그만큼 방대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양의 오페라 녹음을 남긴 사람은 없다.

아울로스의 카라얀 음반들

 <p>8.111053-54 JS 바흐: 미사 B단조 (1952-3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마르가 회프겐 니콜라이 게다 하인츠 레푸스 빈 악우협회합창단 빈 필하모닉 & 필하모니아</p>	 <p>8.1110897-98 홀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1953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엘리자베스 그뤼머 요제프 메타니히 애니 펠버마이어 외 필하모니아</p>	 <p>8.111232-34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1954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리자 오토 레오폴트 시모노 세스토 브루스칸티니 외 필하모니아</p>	 <p>8.111026-27 푸치니: 나비부인 (1955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니콜라이 게다 루치아 다니엘라 마리오 보리엘로 외 라 스킨라 오페라</p>	 <p>8.111036-37 J 슈트라우스 2세: 박쥐 (1955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리타 슈트라이히 니콜라이 게다 에리히 쿤츠 외 필하모니아</p>
 <p>8.111033-34 R 슈트라우스: 낙소섬의 아리아드네 (1954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리타 슈트라이히 임가르트 제프리트 루돌프 쇼크 외 필하모니아</p>	 <p>8.1110872-75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1951년 녹음) 오토 에델만 에리히 쿤츠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한스 호프 게랄트 슈플체 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p>	 <p>8.111070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1-4번 외 (1953, 55년 녹음) 테니스 브레인 필하모니아</p>	 <p>BPH0606 베르디: 교향곡 9번 '할창' (1963년 녹음) 군돌라 야노비츠 지글린데 바그너 루이지 알바 오토 비니 RIAS 합창단 성 헤드비히 교회합창단 베를린 필하모닉</p>	 <p>DV-CLOPIT 베르디: 일트로바토레 (1978년 실황) 플라치도 도밍고 지오반나 코소토 피에로 카푸칠리 호세 반 담 라이나 카마이반스카 빈 슈타츠오퍼</p>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50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개정판), 바이올린협주곡, 관악기 교향곡 외

제니퍼 프라우치(vn) / 필하모니아 외 / 로버트 크래프트
스트라빈스키 탄생 125주년 기념음반.
떠오르는 신에 제니퍼 프라우치가 바르톡, 프로코피예프의 작품들과 더불어 20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협주곡의 하나인 작곡가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연주하였고, 작곡가의 애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가 <봄의 제전>의 1967년 개정판을 녹음하였다. 영국을 대표하는 악단인 필하모니아의 우수한 앙상블이 음반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남성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칸타타 <별들의 왕>과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7818

리히터: 6개의 그랜드 심포니 (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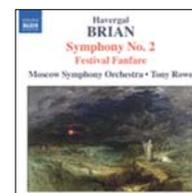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 아포 헤카빈
프란츠 리히터(1709-89)는 장군들의 군대 라 불리던 만하임 궁정악단의 일원이었다. 6개의 그랜드 심포니는 그가 만하임 궁정에 합류하기 직전에 완성한 작품들로 이미 원숙한 경지에 있었던 작곡가의 창조력이 잘 드러나는 가작들이다. 정교한 대위구조, 느린 악장의 유려한 선율미, 자연스런 화성진행 등 전고전시대 교향곡의 미덕을 고루 갖춘 작품들. 시대악기 단체인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70600

마 시콩: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시아오-메이 쿠(vn) / 닝 루(pf)
마시콩(1912-87)은 현대 중국음악계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교사로 기억되는 이름이다. 그는 중국 각지의 다양한 민속적인 소재들을 서양음악의 틀 속에 접목시켰다. 본 음반에 수록된 <내몽고 모음곡>, <티벳 읍시>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 동양적인 서정이 아름다운 <자장가>, <아메이 모음곡>, <목가> 등이 수록되었다.



Naxos 8.570506

브라이언: 교향곡 2번, 축제 팡파르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 토니 라우
해버걸 브라이언(1876-1972)은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27편의 교향곡을 완성했던 영국의 감추어진 심포니스트였다. 괴테의 희곡 <괴츠 폰 베를링겐>에서 영감을 얻었던 교향곡 2번은 전통적인 4악장 체계 안에 드러마틱한 음악적인 내용물을 가득 담아놓았다. 작곡가의 다른 교향곡들과 마찬가지로 16대의 호른, 3세트의 팀파니, 2대의 피아노, 오르간 등이 포함된 방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Naxos 8.570259

블로흐: 4개의 에피소드, 2개의 시, 콘체르티노 외

노암 부흐만(pf) / 유리 간델스만(va) / 아틀라스 카메라타 외 / 달리아 아틀라스

유태계 작곡가 블로흐는 <셀로모>, <이스라엘교향곡>과 같은 히브리 색채가 짙은 작품들로 유명하다. <겨울>과 <봄>으로 구성된 두개의 시는 네오-로맨티즘을 지향하던 초기 관현악곡들, 현악오중주+목관오중주+피아노의 편성의 4개의 에피소드는 연주자들의 조절기교를 요구하는 작품, 비올라와 플루트, 현을 위한 콘체르티노와 플루트와 현을 위한 <모달 모음곡>은 숙련된 대위법을 가미한 작곡가의 최만년작들.



Naxos 8.570401

베르크, 힌데미트, 쇤베르크, 하르트만: 피아노소나타

앨리스 브류스터 프란제티(pf)

쇤베르크의 3개의 피아노소품은 음열주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이전의 후기낭만적인 이디옴에 충실한 작품. 반면 제자 베르크의 소나타는 쇤베르크 문하에서 학습단계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완성된 작품이다. 간결하고도 경쾌한 힌데미트의 소나타 2번은 작곡가의 기악곡들 중에서 접근성이 좋은 작품. 하르트만의 소나타 (1945년 4월 27일)은 부제 그대로 전쟁말미의 비극적인 상황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작품.

비르투오조 첼로 쇼피스 (드보르작, 카사도, 단치 외)

마리아 클리젤(vc) / 니나 티치맨(pf)

영국 작곡가 오어의 '카르멘 환상곡'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인기 레퍼토리인 사라사테와 왁스만의 동명작품들에 상응하는 첼로 레퍼토리다. 첼로의 중저음으로 만나는 귀에 익은 비제의 선율들이 신선하다. 단치의 '돈조 만니 변주곡'과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세빌라의 이발사 변주곡' 역시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인기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에 기초한 아기자기한 소품들. 드보르작의 론도와 '고요한 숲'과 더불어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나를 첼로로 편곡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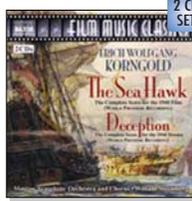
Naxos 8.557613

버드: 마이 레이디 네벨스 북(My lady Nevelles booke)

엘리자베스 파르 (cemb)

버드는 철학자 베이컨의 배다른 누이이자 헨리 네빌 경의 부인이었던 레이디 네빌을 위해 걸출한 건반작품집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집에는 다양한 춤곡과 변주곡들, 그리고 전쟁묘사음악들에서 연유된 바탈라 양식의 작품들이 42편 수록되어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화려하게 꽃 피웠던 영국 건반음악의 정수를 이 작품집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파르는 이 녹음을 위해 3종류의 하프시코드와 류트-하프시코드를 번갈아 활용하였다.

Naxos 8.570139-41



Naxos 8.570110-11

코른골트: The Sea Hawk, Deception, 첼로협주곡

알렉산더 자코리츠키(vc) /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 윌리엄 스트롬버그

1940년에 개봉된 예블 플린의 고전활극 <바다매>(Sea Hawk)의 음악을 맡았던 이는 후기낭만음악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에리히 코른골트였다. 빈의 음악신동으로 유명했던 코른골트는 나치를 피해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는 할리우드 영화음악을 전전하면서 생을 마감하였다. <바다매>는 작곡가의 영화음악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 본 음반은 작곡가가 남긴 필름스코어 전곡 녹음의 첫 음반이다.



Naxos 8.570026

투리나: 피아노작품집 Vol.4 (작은 모음곡 1,2 외)

호르디 마스(pf)

투리나는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파야 등과 더불어 20세기 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부흥기를 주도했던 작곡가다. 본 음반의 수록곡은 어린이들의 동심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담았다. 2세트의 <작은 모음곡>은 작곡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안달루시아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작품. <소품들> 역시 슈만이나 드뷔시가 남긴 어린이를 위한 작품들에 견줄만한 매력적인 소품 모음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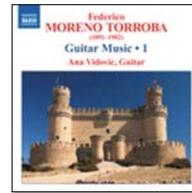


Naxos 8.559305

포터: 현악사중주 1-4번

아이브즈 현악사중주단

파리에서 맹디를, 뉴욕에서 블로흐를 사사했던 퀸시 포터(1897-1966)는 20세기 중반 미국음악계를 대표하던 작곡가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예일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생전에는 관현악분야에서, 사후에는 실내악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고도로 조직화된 폴리포니 구조 소계 유연한 선율의 움직임이 담겨있는 형태였다. 대표작인 9개의 현악사중주 중 앞 쪽의 네 작품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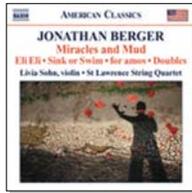
Naxos 8.557902

모레노 토로바: 기타작품집 Vol.1

아나 비도비치(guitar)

페데리코 모레노 토로바는 20세기 스페인 클래식기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의 작품 속에는 스페인의 이국적인 색채, 로맨틱한 감성, 화려한 색채가 자연스레 녹아들어있다. 모음곡 <스페인의 성들>은 제국 그대로 스페인에 산재한 14개의 고성들의 이미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 모음곡 <마드리드의 관문들>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작품이다.

9월 13일 내한 공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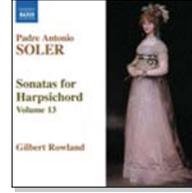


Naxos 8.559342

버거: Miracles & Mud, Eli Eli, Sink or Swim, Doubles etc

리비아 손(vn) / 세인트 로렌스 현악사중주단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작곡가인 조나선 버거(1954년)는 자신의 뿌리인 유대민족음악에 경도된 독특한 색채의 작품들로 현재 미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한 스크롤랜드 민요 'The water is wide'의 선율에 기초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 <Sink or Swim>, 'Dona Dona' 등의 여러 유대 민요를 인용한 <Dobles> 등을 수록. 12세 때 메뉴헨 콩쿨을 석권했던 한국계 연주자 리비아 손의 낙소스 데뷔음반.



Naxos 8.570292

솔레르: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Vol.13

길버트 라울랜드(cemb)

영국의 중견 하프시코드 연주자 길버트 라울랜드가 진행하던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 시리즈가 드디어 완결되었다. 작곡가가 남긴 150여편의 소나타를 도합 13장의 음반에 빼곡히 채워넣은 것이다. 성직자 겸 음악가였던 솔레르신부는 스페인음악의 영향과 스페인의 민속음악적인 요소가 결집된 건반소나타들로 18세기 중반 건반음악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이다.



MDG Best Seller 10



MDG 643 1454-2

베토벤: 영웅교향곡 (리스 편곡), 피아노 사중주 Op.6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

실내악으로 만나보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이 걸작 교향곡을 피아노 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함께 수록된 Op.16 역시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를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의 견실한 연주는 편성의 차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큰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MDG 603 1423-2

오보에 솔로(JS 바흐, 실베스트리니, CPE 바흐, 피아졸라)

곽연희 (오보에)

오보에의 관능적인 비음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음반. 단 현대의 오보에만으로도 이토록 흥미진진한 음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흐 부자가 플루트 솔로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이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을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오보에 솔로를 위한 피아졸라의 탱고-에튀드와 오보에주자 출신의 작곡가 실베스트리니의 여섯 개의 에튀드 역시 단순한 연습곡 이상의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연주자 곽연희는 한양대음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뮌헨 방송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재원. 오보에연주자들의 필청 음반.



MDG 321 0339-2

빌라-로보스: 첼로협주곡 2번,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그랜드콘체르토

율리히 슈미트(첼로) / 북서독일 필하모니 / 도미니크 로겝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의 거목 빌라-로보스. 그의 탄생 120주년 기념음반. 작곡가가 남긴 두 첼로협주곡을 모은 이 음반은 1989년 LP로 출시된 음원으로, 이번에 처음 CD포맷으로 재발매된 것이다. LP출시 당시 포노포럼과 팡파르 등에서 절찬을 받았던 명연이며, 오디오파일적인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 첼로협주곡은 브라질 민속음악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반면, 그랜드 콘체르토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이 배어 나오는 작품이다.



MDG 340 1440-2

슈베르트 : 피아노소나타 D959, 피아노를 위한 춤곡 모음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피아노)

Canne Classic Award : Artist of the Year 2007

2007년 칸느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된 자하리아스의 최신보. 정통 독일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던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의 장점이 다시금 빛을 발한다. 슈베르트가 사망한 해인 1928년에 완성된 소나타 D959는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로부터 인용된 여러 선율들이 수수께끼처럼 얽혀있는 흥미로운 작품. 슈베르트가 가곡 못지 않게 피아노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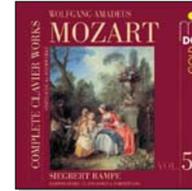


MDG 603 1442-2

온슬로우: 피아노 육중주 Op.30, 피아노오중주 Op.79bis

앙상블 콘체르탄테 프랑크푸르트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온슬로우의 네 번째 선율영국 혈통의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온슬로우는 70여 편에 달하는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다. 피아노협주곡과 같은 웅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피아노 육중주, 악기편성이나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모두가 슈베르트의 오중주 '송어'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오중주 모두 이 작곡가 특유의 우아하고도 아기자기한 매력에 심분 드러나는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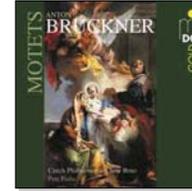
MDG 341 1305-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Vol. 5 (소나타 K310, 330, 9변주곡 K264 외)

지그베르트 램페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의 세 종류의 옛 건반악기들을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탐험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주자 지그베르트 램페, 이번 다섯 번째 음반에는 다섯 살 때 작곡한 이 천재작곡가의 가장 초기작과 성장 이후 파리어행 중과 귀향이후에 작곡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심원한 음악적 깊이를 담은 연주' (FonoForum), '대단히 감탄할만한 연주' (Klassi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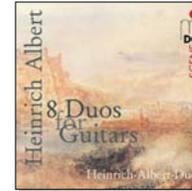


MDG 322 1422-2

브루크너: 모테트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 페트르 피알라

11개의 거대한 규모의 교향곡들로 대변되는 브루크너이지만, 그의 또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종교합창곡이다. 3편의 미사, 테데움이 출중하며, 아카펠라합창을 위해 작곡한 다수의 모테트들 역시 간과하기 쉬운 이 작곡가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Ave Maria, Locus iste, Pange lingua 등이 탁월하며, 다양한 조성으로 제시되는 Tantum Ergo 연작 다섯 편도 흥미롭다.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합창단은 1990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단체지만, 중부유럽의 온후한 합창 음악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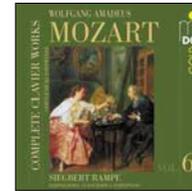


MDG 603 1429-2

알베르트: 8개의 기타 이중주곡

하인리히 알베르트 듀오

하인리히 알베르트는 20세기전반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기타음악 작곡가들 중 가장 돋보이는 이름이었다. 그가 1915-7년에 완성한 8곡의 기타 이중주는 그의 기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작품들로 내용적으로는 독일 후기낭만음악의 이디엄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의 기교적인 특성 또한 적극 활용한 작품들이다.



MDG 341 1306-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Vol.6 (소나타 K13, 15, 282, 변주곡 K613, 서곡 K399)

지그베르트 램페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그리고 2종류의 하프시코드를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작품 전체를 섭렵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악기 연주자 지그베르트 램페의 모차르트 시리즈의 6번째 음반. 모차르트가 9살 되던 해인 1765년 런던 연주여행 기간 중 완성된 두편의 소나타(K 13, 15)와 작곡가의 마지막 피아노작품인 8개의 변주곡 K613을 함께 수록하였다.



MDG 307 1430-2

드뷔시, 포레: 현악사중주 & 카플레: 콩트 판타스티크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 (하프)

프랑스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에스피리를 머금은 세 편 실내악 걸작을 함께 수록하였다. 실내악 명가 MDG의 간판 아티스트들인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은 이미 라벨, 타이유페르, 미요의 실내악을 담은 음반(307 1359-2)을 통해 프랑스 근대음악에 대한 뛰어난 해석을 펼친 바 있다. 드뷔시의 세련미, 포레의 우아함도 특별하지만, 하프의 색채적인 활약상이 돋보이는 카플레의 콩트 판타스티크가 음반의 격을 드높였다.



가장 스페인 사람 같은 한국사람

기타리스트 장대건 Guitarist DaeKun Jang



“가장 스페인 사람 같은 한국사람”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Alvaro Pierri가 기타리스트 장대건이 연주하는 스페인 음악을 듣고 난 후에 한 말이다. 장대건이 연주하는 스페인 음악에 대한 찬사를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다. 흔히들 스페인 작곡가의 곡들은 스페인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리듬이나 정서로 인해 스페인 출신이 아닌 연주자들이 잘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스페인 기타리스트 사이에서도 스페인 음악을 스페인 출신 사람보다 더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기타 페스티벌 등에서 스페인 음악을 지도하고 있다. 그가 연주하는 스페인 음악에는 스페인 유학을 통해 습득한 스페인의 감성과 한국인이 가지는 특유의 정서가 잘 조화를

이루어 스페인 음악을 넘어서는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화려한 콩쿨 입상 경력에 비해 국내에 장대건이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진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난 후 줄곧 스페인과 유럽무대를 대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고 국제 콩쿨의 입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소식이 국내 언론에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국내 기타계에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이름이 처음 알려진 계기는 2001년 인터넷 클래식 기타 사이트에 그의 스위스 바젤에서의 실황연주가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캠코더로 찍은 것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화질 및 음향이 많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건이 그 연

주회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는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다.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 소나타의 피날레에서 보여준 격렬함과 파워, 페르난도 소르(Fernando Sor)의 장송 행진곡에서의 보여준 처절한 아름다움,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Nuria Rial)과의 협연에서의 세련된 반주와 호흡은 국내 기타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왔다. 그러한 계기가 2003년 국내 첫 독주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2번의 독주회를 통해 장대건은 국내 기타 연주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장대건의 3차례의 연주회를 통해 유럽의 기타 콩쿨에서 자주 등장하는 현대적인 작품의 국내 초연과 풍성한 감성, 섬세한 터치, 학구적인 해석 등 한 차원 높은 연주를 선보여 짧은 시간에 기타 및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대건의 음악에는 본인만의 분명한 색채와 감동이 있다. 장대건의 연주에는 세고비아의 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볼륨감 넘치는 음색, 현대음악에서 보여주는 강렬함과 파워, 바로크 음악에서 보여주는 엄숙함, 낭만파 음악에서 보여주는 섬세함과 아고기, 스페인 음악에서 보여주는 절묘한 리듬감 등이 다채롭게 존재하여 그의 연주회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잘 차려진 식탁을 맞이하는 느낌을 준다. 장대건의 연주는 그러한 점에서 화려한 테크닉만을 내세우는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와는 확연하게 차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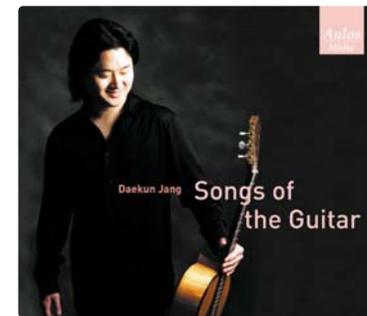
장대건을 만나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점은 익히 알려진 그의 연주력 보다는 오히려 그가 가진 폭 넓은 음악적 소양과 깊이이다. 장대건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기타로 시작하여 음악사 전 시대를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대건이 지닌 음악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논리 정연함은 그의 음악적 관심이 기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 전반에 대한 열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는 오스카 길리아와 공부하던 스위스 바젤 스킨라 칸토룸에서 바로크 통주저음과 르네상스 탄현악기 연주법을 비롯한 고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든 음악장르에 걸쳐 Leonhardt, Schneider, Arraga, Kurtag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공부를 했고 이러한 바탕이 오늘날의 기타리스트 장대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작년 말에 발매된 그의 첫 앨범 “Songs of The Guitar”는 장대건만이 가지는 장점을 음악 애호가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첫 앨범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음악 애호가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소품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명확한 음의 분리, 섬세한 테크닉과 따뜻한 감성의 절묘한 조화, 서정적인 표현 등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기타 음반으로 보기 드물게 몇 달간 클래식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외지에서도 장대건의 첫 음반에 대해서 음악으로 그린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장대건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보하는 연주자이다. 장대건의 경우는 2003년 이후 국내에서 매 년 연주회를 가질 때 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 매년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연주하는 경우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의 연주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9월 28일에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장대건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반부는 줄리아니, 소르, 레곤디, 메르츠 등 고전과 낭만파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고 후반부는 스페인 작곡가의 곡들과 일본의 거장 토루 타케미치의 'Folios' 를 국내 초연할 예정이다. 특히 전반부 프로그램인 고전과 낭만시대 작곡가 곡은 그 당시의 악기인 로만틱 기타로 연주할 예정이므로 그 의미가 남다른 연주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김경호



장대건 기타 리사이틀

- 일시 :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8:00
- 장소 : 금호아트홀
- 주최 : 아울로스미디어

우리 악기의 매혹을 전하는 퓨전 음악이야기

김성민 피리연주곡집 '羽化(우화)'



안산 시립 국악단의 피리 수석이며 퓨전 국악 연주단 '김성민 스토리'를 이끌고 있는 김성민이 '우화(羽化)'란 타이틀의 독특한 퓨전 국악음반을 선보였다. 음반제목은 중국의 시인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우화등선(羽化登仙)을 줄인 말로 곤충이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뜻하며, 물론 이번 음반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자신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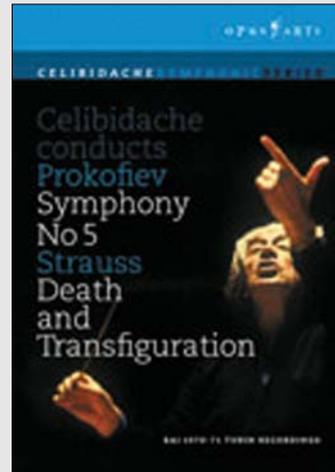
세계를 비유한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배철수의 음악캠프, 윤도현의 리브레터, KBS 국악한마당 등에 출연해 자신의 이미지를 알렸던 그가 이제 자신의 음악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있는지 이 한 장의 음반이 잘 보여준다.



호소력 강한 태평소의 음색과 무거운 락 시운드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인트로(Intro)'를 시작으로 '도시를 뒤로 하고', '낮은 사진첩', '분노의 정', '가을피리', '한 장의 편지', 'Dear SK', '아름다운 입술', 'Dacapo'까지, 모두 일상생활의 성찰과 자전적 경험과 반성에서 온 강렬한 색채의 음악들이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0979D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
R. 슈트라우스: 죽음과 변용

연주: RAI 토리노 교향악단
지휘: 첼리비다케

긴밀하고 화려한 첼리비다케 지휘예술 이탈리아 국영 방송국 RAI의 숨겨진 '역사적 콘서트' 시리즈로 1970년 첼리비다케의 콘서트 영상물이다.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최고 걸작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5번>과 슈트라우스의 유명한 관현악곡 <죽음과 변용>을 담았다. 모두 암보로 지휘하고 있는 거장은 시종 긴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관현악 앙상블의 진수를 들려준다. 지휘하며 춤을 추는 거장의 모습도 볼 수 있는 프로코피예프 악곡이 장대한 코다로 화려하게 마무리되면 청중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병상에 누운 모습, 청춘의 회상, 비운을 날려 보내고 광명을 향해 부르는 찬가 같은 <죽음과 변용>에서 악곡의 회화적 성격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 곡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흑백 영상이다. 77분.

Also Available



Opus Arte OA0976D

브루크너:
교향곡 9번

RAI 토리노 교향악단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Opus Arte OA0977D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RAI 토리노 교향악단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Opus Arte OA097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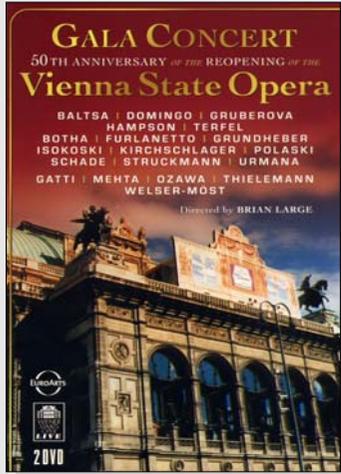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슈베르트:
교향곡 2번(+케루비니 서곡)

RAI 토리노 교향악단
세르지우 첼리비다케



EuroArts 수입 DVD



EuroArts 2054928

빈 국립오페라재개관 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

다섯 명의 마에스트로들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22명의 정상급 가수들이 등장하는 사상 최고의 갈라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1955년 11월 5일은 2차 대전 중 파괴되었던 빈 국립오페라하우스가 재개관했던 날이다. 2005년 11월 5일 재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갈라 콘서트가 펼쳐졌다. 빈 국립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인 세이지 오자와, 차기 음악감독 내정자인 프란츠 벨저-뫼스트를 비롯하여,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다니엘레 가티 등의 다섯 정상급 지휘자들이 번갈아 지휘봉을 잡았고, 도밍고, 발차, 그루베로바, 햄슨, 터펠, 플라스키, 이소코스키 등의 최고의 오페라 스타들이 줄줄이 등장하여 화려한 오페라의 향연을 펼쳐 나간다. 이날의 공연 프로그램은 재개관 시즈 당시 무대에 올렸던 오페라들 중에서 돈조반니, 피델리오, 장미의 기사, 아이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그림자 없는 여인의 여섯 작품을 택하여 각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콘서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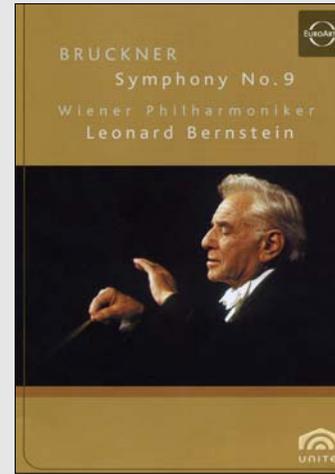
오페라 애호가들이 아니더라도 3시간동안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 갈라 콘서트의 푸짐한 성찬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조자료]

- 참가가수들: 플라치도 도밍고, 아그네스 발차, 에디타 그루베로바, 토마스 햄슨, 데보라 플라스키, 브린 터펠, 비올레타 우르마나, 소일레 이소코스키, 안젤리카 키르히슬라거, 팔크 슈트룩만, 페루치오 플라네토, 미카엘 샤데, 요한 보타, 보이스 다니엘, 발터 핑크, 나디아 크라스테바, 프란츠 그룬트헤버, 제니아 퀴흐마이어, 리카르다 메르베트, 헤르비히 페코라로, 일디코 라이몬디, 게오르크 티히

- 현재 빈 국립오페라의 음악감독인 세이지 오자와(피델리오)를 비롯하여, 차기 음악감독 내정자이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프란츠 벨저-뫼스트(그림자 없는 여인), 로얄 필하모닉과 볼로냐 코무날레 극장의 음악감독인 다니엘레 가티(아이다), 이스라엘 필과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극장의 음악감독인 주빈 메타(돈조반니), 뮌헨 필의 상임지휘자이자 현재 바이로이트의 주인공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장미의 기사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이 번갈아 지휘봉을 잡았다.

- 무대 양 사이드에 마련된 좌석에는 빈 국립오페라를 빛내었던 왕년의 명가수들이 착석하여 콘서트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크리스타 루트비히, 군들라 야노비츠 등의 추억의 원로가수들의 주름진 얼굴을 발견하는 것도 이 영상물의 또 다른 재미.



EuroArts 2072018

브루크너: 교향곡 9번

Leonard Bernstein
Wiener Philharmoniker

레너드 번스타인과 빈 필의 마지막 콘서트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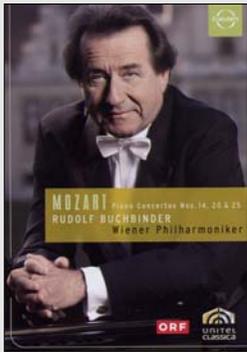
본 DVD는 지금까지 등장한 번스타인의 영상물들 중에서 그의 가장 마지막 모습을 담은 것이다. 1990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빈의 무지크페라인잘에서 있었던 빈 필과의 마지막 콘서트를 수록하였다. 생전의 번스타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러의 현신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브루크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6번과 9번 두 작품만을 정식으로 녹음했을 뿐이다. 하지만 최만 년에 남긴 이 9번의 녹음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1970년 유럽진출 이후 번스타인의 예술세계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던 빈 필과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연주외적인 의의와 더불어 지휘자와 악단 모두 브루크너의 신에 대한 거대한 사랑을 담은 이 작품에 완전히 동화된 것과 같은 혼신의 연주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화면에 드러나는 거장의 모습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지휘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스처는 늘 그래왔듯이 열정적이다. 번스타인 애호가들은 물론 브루크너러인들을 위한 최고의 영상물이 될 것이다. 4:3의 화면비율에 PCM Stereo, Dolby 5.1, DTS 5.1의 세 가지 사운드 포맷을 지원한다.

[보조자료]

- 번스타인은 3중류의 브루크너 음반을 정식으로 남겼다. 1976년 뉴욕 필을 지휘한 교향곡 6번(Sony)과 1969년 역시 뉴욕 필을 지휘한 교향곡 9번(Sony), 그리고 본 영상물과 동일한 공연실황을 기록한 DG의 음반이 그것들이다.

- 번스타인은 1957년 39의 나이로 뉴욕 필의 상임지휘자에 취임한 이후, 1969년 스스로 사임하기까지 12년 동안 이 악단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1970년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이후 그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악단이 바로 빈 필이었다. 번스타인은 빈 필과 더불어 베토벤과 브람스의 교향곡 사이클을 완성하였고, 그의 두 번째 말러 교향곡 시리즈의 상당수도 이 악단과 함께 작업하였다.

- 브루크너는 63세되던 해인 1887년에 교향곡 9번에 착수하였다. 3악장을 완결한 것은 죽기 2년 전인 1894년. 2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마지막악장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이라도 한 듯 브루크너는 이 거대한 교향곡을 자신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하느님께 헌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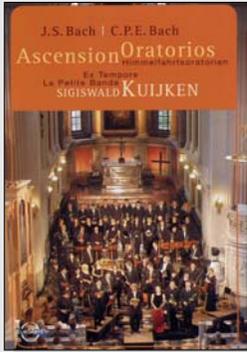
EuroArts 2055908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4, 20, 25번

Rudolf Buchbinder(cond & pf) / Wiener Philharmoniker

부흐빈더와 빈 필이 들려주는 빈의 정통 모차르트 사운드

2006년은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이자 빈의 중견 피아니스트인 루돌프 부흐빈더가 60번째 생일을 맞는 해였다. 2006년 빈 페스티벌 기간 중 양쪽 모두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졌다.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12곡을 빈 필과 더불어 시리즈로 연주한 것. 본 영상물은 그 중 5월 7일에 연주된 3편의 협주곡(14, 20, 25번)을 수록하였다. 1948년에 태어난 루돌프 부흐빈더는 불과 5살의 나이로 빈 음악원에 최연소로 입학했던 전형적인 신동 연주자였다. 이후 실내악 분야에서 캐리어를 충실히 쌓았으며, 독주자로서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고정출연하였고, 베를린 필, 빈 필,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등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빈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아왔다. 작품의 해석에 대한 깊은 안목, 완벽한 기교, 음색에 대한 탁월한 청감, 템포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이 연주자가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의 정수를 펼쳐 보인다. 본인이 직접 지휘를 겸하였으며, 빈 필이 자랑하는 우아하고도 풍성한 사운드가 모차르트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16:9의 화면비율과 PCM Stereo, Dolby 5.1, DTS 5.1 세 가지 사운드 포맷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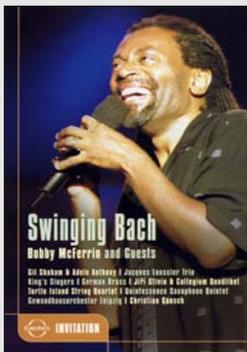
EuroArts 2072018

**J.S. Bach : Oratorio 'Lobet Gott in seinen Reichen' BWV11
CPE Bach : Oratorio 'Die Auferstehung und Himmelfahrt Jesu' Wq240**

Sophie Karth(user(sop) / Patrizia Hardt(alt) / Christoph Einhorn(te) / Christoph Genz, (te) / Jan van der Crabben(bar) / Stephan Genz(bass) / Ex Tempore / La Petite Bande / Sigiswald Kuijken

승천축일을 위한 바흐 부자(父子)의 종교걸작들.

2004년 5월 16일 라이프치히의 바흐 페스티벌 실황, 토마스 교회와 더불어 바흐의 주 활동무대였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펼쳐졌던 콘서트다. 벨기에가 배출한 바로크음악의 거장 시히스발트 카위켄과 그가 이끄는 시대악기 오케스트라, 라 프리 방드가 바흐 부자의 뛰어난 종교작품 두 편을 함께 연주하였다. 두 작품 모두 승천축일(Ascension Day)을 위한 오라토리오 작품들인데, 아버지 요한 제바스티안의 오라토리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Lobet Gott in seinen Reichen) BWV11은 1735년 승천축일을 위해 완성된 작품으로, 신약에서 발췌한 구절과 함께 목상적인 내용의 종교시들을 텍스트로 삼았다. 카를 필립 엠마누엘은 요한 제바스티안의 아들들 중에서 작곡가로서 가장 큰 명성을 누렸던 인물이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Die Auferstehung und Himmelfahrt Jesu)은 1774년 부활절에 초연된 작품으로, 바로크적인 형식미와 로코코의 우아함이 결합된 작곡가의 대표적인 종교합창곡이다. 겐즈 형제(크리스토프, 슈테판)를 비롯한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절창과 더불어 엑스 템포레 합창단의 뛰어난 앙상블이 연주의 완성도를 드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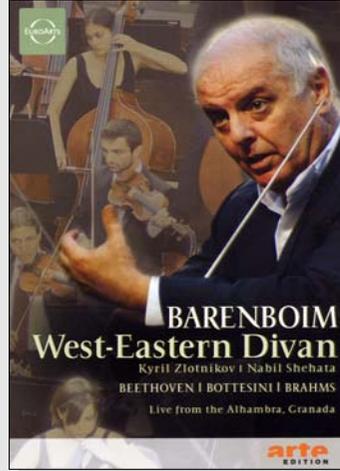


EuroArts 2050406

**Swinging Bach
Bobby McFerrin & Guests**

흥겨운 스윙으로 재탄생한 바흐의 선율들

바흐가 재즈를 만났다. 2000년 7월 28일 바흐의 서거 250주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펼쳐졌다. 바흐를 기념하는 수많은 콘서트들 중에서도 이 공연상황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종래의 엄숙한 시각이 아닌 흥겨운 스윙 리듬 속에 재탄생한 신선도만점의 바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흐의 선율을 스탠더드 재즈에 접목시켜왔던 자크 루시에 트리오, 가장 훌륭한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는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스캇의 대가 바비 맥퍼린, 아카펠라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남성중창단 킹스 싱어즈, 플루트, 색소폰, 리코더 등을 두루 다루면서 재즈, 락, 클래식을 넘나들며 활약중인 만능 뮤지션 이지 스티븐, 크로스오버 현악사중주단인 터틀 아일랜드 사중주단, 퀸테센스 색소폰 오중주단 등이 각자 저마다의 방식대로 바흐의 음악을 재창조하였다. 260년 전통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과 아델레 안소니, 그리고 저먼 브라스가 정통 클래식의 시각에서 콘서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바비 맥퍼린의 스캇으로 노래하는 바흐 평균율 1번 전주곡에 맞추어서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는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특별한 감동을 안겨준다.



EuroArts 2055538

**Beethoven: Leonore Overture No.3
Bottesini: Fantasia on themes by Rossini
Brahms: Symphony No.1 in C minor**

Kyryl Zlotnikov(vc) / Nabil Shehata(Db) / Daniel Barenboim / West-Eastern Divan Orchestra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허무는 화합의 콘서트

중동지역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의 뿌리 깊은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음악과 젊음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작은 노력인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존재가 더욱 귀중하게 다가온다. 유태계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지성 에드워드 사이드가 함께 시작한 이 젊은 오케스트라는 대 지휘자 바렌보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정치사회적인 이슈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내용면에서도 정상급 프로 악단들에 뒤지지 않는 충실함을 보여준다. 본 DVD는 2006년 8월 20일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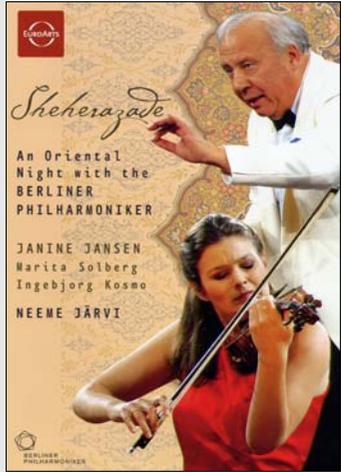
콘서트를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연주회가 있었던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바로 유명한 알람브라 궁전에서 펼쳐진 것.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 궁전은 무슬림들에 의해 완성된 곳으로, 두 종교문화권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이 특별한 악단이 펼치는 연주회의 열기는 그래서 더욱 뜨겁다. 특히 브람스 교향곡 1번에서 이들이 일사분란하게 발산하는 젊은 에너지는 대단히 강렬하다. 알람브라 궁전의 풍광과 더불어 연주회를 준비하는 바렌보임과 악단원들의 여러 모습을 담은 포토 갤러리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보조자료]

- 유태와 무슬림의 젊은 음악도들로 구성된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의 아이디어는 유태인 지휘자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가 함께 내놓았다. 1999년 창단된 이 악단은 이 지역의 평화전도사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순항중이다. 유태인 수용소가 있던 독일 바이마르나, 여러 종교와 민족의 혼재 지역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등지에서 음악워크숍을 가졌으며, 2004년에는 평화의 도시 제네바에서, 2005년에는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역 라말라에서 역사적인 콘서트를 가지기도 했다.

- 로시니의 친근한 선율들을 엮은 보테시니의 환상곡은 첼로와 더블베이스 이중주와 오케스트라 반주를 위한 독특한 편성의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화음체임버의 리더로 우리 애호가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인 일본 출신의 유명 더블베이스주자 미치노리 분야가 편곡한 것이다.

- 그라나다의 알람브라궁전은 13세기 후반 스페인의 마지막 무슬림왕조인 나스르왕조의 무하마드 1세에 의해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중개축을 거치면서 이베리아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서 영화를 누렸지만, 1492년 통일왕국을 이룬 스페인의 페르디난트-이사벨라 부부 왕의 침공으로 함락되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슬람 건축의 정수이자 중세 이슬람문화의 결정체로 유명하다.



EuroArts 2055318

SHEHERAZADE

An Oriental Night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Rimsky-Korsakov: Sheherazade

Grieg: Peer Gynt (selections)

Nielsen: Aladdin (selections)

Saint-Saens: Introduction et Rondo capriccioso

Mozart: Overture (Die Entführung aus dem Seril)

한여름 숲속의 음악 잔치인 발트뷔네 콘서트

빈 필에게 정초의 신년음악회가 있다면 베를린 필에게는 한여름 숲속의 음악잔치인 발트뷔네 콘서트가 있다. 본 영상물은 2006년 발트뷔네 콘서트 실황을 수록하였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거장 지휘자 네메 예르비가 지휘봉을 잡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너 바이올린 연주자 예나인 얀센이 메인게스트로 초대되었다. 이번 발트

뷔네 콘서트의 테마는 '오리엔탈 나이트'다. 천일야화에 기초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화려한 교향시 '세헤라자데'를 필두로 닐센의 모음곡 '알라딘', 그리그의 극부수음악 '페르귄트', 모차르트의 '후궁으로의 유괴' 서곡 등등 오리엔트의 이국적인 정취를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예르비는 선 굵은 지휘는 수록곡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더욱 빛나게 하며, 얀센의 바이올린 역시 '타이스의 명상곡'의 고요한 관능미와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의 화려함을 한껏 강조하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린케의 '베를린 공기'로 이 성대한 음악축제가 흥겹게 마무리된다.

[보조자료]

- 매년 초여름이면 베를린 숲속에서는 이곳 시민들을 위한 성대한 음악축제가 펼쳐진다. 이름 그대로 '숲속의 무대' (Waldbühne)에서 펼쳐지는 이 시민 콘서트의 시초는 히틀러 정권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36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야외무대가 23,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규모로 부활하였고, 1984년부터 베를린 필의 연주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 스코티시 내셔널오케스트라, 예테보리 심포니, 디트로이트 심포니 등의 상임을 맡았던 러시아 출신의 거장 네메 예르비는 카라얀에 필적하는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를 자랑한다. 그의 큰 아들 파보 예르비 역시 정상급 지휘자로 성장하였으며, 둘째 크리스티안과 막내 마리카도 각각 지휘자와 플루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 예나인 얀센은 1978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태어났다. 2005년 프롬스에 데뷔하였으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테카와의 계약 이후 콘서트와 레코드 양면 모두에서 화제의 연주자로 승승장구 중이다. 현재 시카고 스트라디바리우스 협회에서 제공한 1727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Barrere'를 사용하고 있다.



EuroArts 2055158

A MOZART GALA FROM PRAGUE

Mozart : Overture (Don Giovanni), Clarinet Concerto, Symphony No.38 (Prague)

Sharon Kam(cl) /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 Manfred Honeck

프라하에서 펼쳐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콘서트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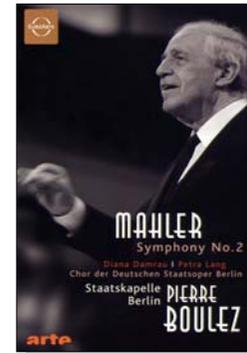
2006년 1월 27일 프라하에서 펼쳐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콘서트 실황. 작곡가가 남긴 주옥같은 작품들 중에서 프라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세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 <프라하>라는 타이틀이 붙은 교향곡 38번은 물론이거니와, 오페라 <돈 조반니>와 클라리넷협주곡 K.622 역시 각각 1787년과 1791년에 이 도시에서 초연된 작품들이다. 이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 프라하 시민극장(Prague Estates Theatre)은 1783년에 완공된 유서 깊은 공연장으로 위의 세 작품 모두가 초연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었다. 수석객원지휘자인 만프레드 호넵이 체코 필을 지휘하였고, 정상급 연주자인 샤론 캄이 클라리넷협주곡을 협연하였다. 샤론 캄은 저음역의 바셋 클라리넷을 사용하여 모차르트가 슈타들러를 위해 완성시켰던 이 작품의 오리지널 버전을 훌륭히 재현하였다.

Mahler: Symphony No.2 (Resurrection)

Diana Damrau(sop) / Petra Lang(ms)

Chor der Deutschen Staatsoper Berlin & Staatskapelle Berlin / Pierre Boulez

2005년 3월 26-27일 실황. 작곡가와 지휘자 양면 모두에서 음악계의 큰 존경을 받고 있는 피에르 블레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 슈타츠오페라에서 마련한 성대한 축하콘서트의 실황이다. 흥미로운 것은 베를린 슈타츠오페라가 아닌 베를린 필의 거점인 필하모니에서 연주회가 펼쳐졌다는 점. 스코어에 대한 확고하고도 객관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는 블레즈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은 그동안 애호가들과 평론가들 양쪽 모두를 크게 만족시켜왔었다. 그의 교향곡 2번은 전통적인 로맨틱한 해석을 지양하는 대신, 이 거대한 작품 속에 새겨 넣은 심판의 두려움과 부활의 기쁨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와 메조 페트라 랑의 열창도 이 연주가 주는 큰 감동에 한 몫을 한다. 콘서트 직후 있었던 블레즈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명예지휘자 취임식이 짙막한 부가영상으로 제공된다. 이 위대한 음악가에 대한 뜨거운 존경을 담은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가 필하모니를 가득 메우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EuroArts 2054418

Mozart: Piano Concertos Nos. 22, 23, 24

Rudolf Buchbinder (cond & pf) / Wiener Philharmoniker

본 DVD는 2006년 5월 17일 빈의 무지크페라인장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모차르트 연주회를 담고 있다.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과 피아니스트인 루돌프 부흐빈더가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 빈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는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12곡을 빈 필과 더불어 시리즈로 연주하였다. 본 영상물은 22, 23, 24번의 세 작품을 수록하였다. 작품의 해석에 대한 깊은 안목, 완벽한 기교, 음색에 대한 탁월한 감각, 템포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이 연주자의 장점이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에서 유감없이 펼쳐진다. 특히 22번 협주곡의 아름다움은 각별하다. 자신이 직접 지휘까지 겸했으며, 빈 필은 자신들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사운드로 이 연주자의 깔끔한 연주를 뒷받침하였다.



EuroArts 2055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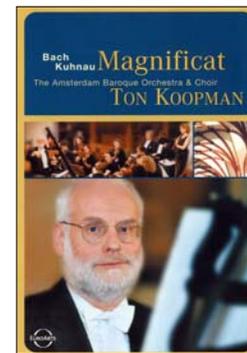
J.S Bach: Magnificat BWV243a,

Cantata "Meine Seel erhebt den Herren" BWV10

Kuhnau: Magnificat in C major

Deborah York(sop) / Bogna Bartosz(alt) / J?rg D?rm?ller(te) / Klaus Mertens(bar) / The Amsterdam Baroque Choir & Orchestra / Ton Koop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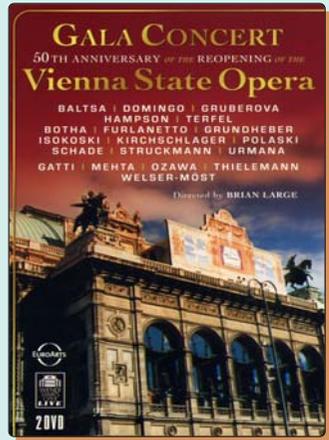
2003년 5월 24일 라이프치히에서 펼쳐진 바흐 페스티벌의 실황. 바흐의 마지막 부임처였던 성 토마스 교회에서 펼쳐진 실황이다. 네덜란드가 배출한 바로크음악계의 거장 톤 코프만과 그가 이끄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를 담았다. JS 바흐의 <마니피카트> BWV243a와 같은 해(1723년)에 완성된 칸타타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Meine Seel erhebt den Herren) BWV10을 수록하였고, 바흐에 앞서서 토마스교회의 칸토르를 맡았던 요한 쿠나우의 <마니피카트>도 함께 무대에 올렸다. 바흐의 <마니피카트>는 독창과 합창이 적절히 어우러진 탄탄한 구성과 맑고 경쾌한 선율로 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작이며, 쿠나우의 작품 역시 바흐 이전 독일의 종교음악의 엄정한 양식미와 근엄한 악상을 담은 훌륭한 표본이라는 점에서 이 영상물은 바로크음악 애호가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소프라노 데보라 요크, 베이스 클라우스 메르텐스와 같은 정상급 바로크전문 가수들의 참여가 연주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준다.



EuroArts 2053419

朝鮮日報

2007년 7월 26일 목요일



EuroArts 2054928

빈 국립오페라극장 재개관 50주년 '갈라 콘서트'

클래식 ABC

파괴하는데는 하루면 충분했지만, 복구하는데는 무려 10년이 걸렸다. 세계 2차 대전 종전(終戰)을 앞둔 1945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 연합군의 맹폭이 시작됐다. 140년 역사의 빈 슈타츠오페라(빈 국립 오페라 극장) 건물도 정면 외곽과 입구만을 남겨놓은 채 대부분 폐허가 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뒤 오스트리아 정계를 중심으로 복구 운동이 일어나지만, 정식 개관한 건 10년 뒤인 1955년 11월이다.

재개관 50주년을 맞아 지난 2005년 빈 슈타츠오페라에서 기념 갈라 콘서트가 열렸다. 최근 이 실황 영상(DVD·유로아츠)이 국내 소개됐다.

음악 감독인 백발의 노장 오자와 세이지(72)는 지휘봉도, 악보도 없이 무대로 올라와 맨손으로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 3번'을 지휘한다. 어깨 넓이로 두 다리를 벌리고 열정적으로 양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휘봉을 건네받는 주빈 메타(71)는 50년 전 재개관 당시 빈 국립 오페라에서 수학하던 음악도였다. "이 오페라 극장에 티켓 없이 들어갈 방법을 궁리했지만 그 때마다 객석 안내원에게 쫓겨나곤 했다"고 웃음 짓던 이 학생은 어느덧 무대 중앙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명 지휘자로 변신했다. 그의 지휘봉에 맞춰 토마스 험스(바리톤), 에디타 그루베로바(소프라노) 같은 당대의 성악가들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를 갈라 콘서트로 풀어낸다.

빈엔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열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 다니엘레 가티, 2010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넘겨 받는 프란츠 벵저 피스트까지 갈라 콘서트에 출연한 지휘자의 명단은 묵직하기 그지 없다.

플라시도 도밍고(테너)와 아그네스 발차(메조 소프라노)는 베르디의 '아이다'에서 호흡을 맞춘다.

사람에게 버림 받은 여인이 "하늘만 이 내 눈물에 대신 복수해줄 것"이라고 처절하게 절규하면, 장군 라다메스는 "어떤 분노도 두렵지 않다"고 의연하게 노래한다. 당시 두 가수의 나이를 합치면 정확히 125세다. 이들의 열연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른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박수로 경의를 표한다.

출연 아티스트의 면면보다 더욱 의미 있는 건, 갈라 콘서트의 프로그램이다. 오페라 '피델리오' (베토벤) '장미의 기사'와 '그림자 없는 여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바그너) '돈 조반니'와 '아이다'까지, 오페라의 주요 장면을 무대나 의

반세기前 '명품 오페라' 거장들 숨결로 고스란히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전경. 크레디아 제공

상 없이 갈라 형식으로 공연한 작품들은 모두 50년 전 재개관 당시 무대에 올랐던 오페라들이다.

공연 중간의 영상 화면은 부지런히 반세기 전의 낡은 포스터와 흑백 공연 사진, 의상 스케치를 조명한다. 50년 전 폐허가 됐던 오페라 극장의 흑백 사진과 지금의 화려한 건물 전경을 대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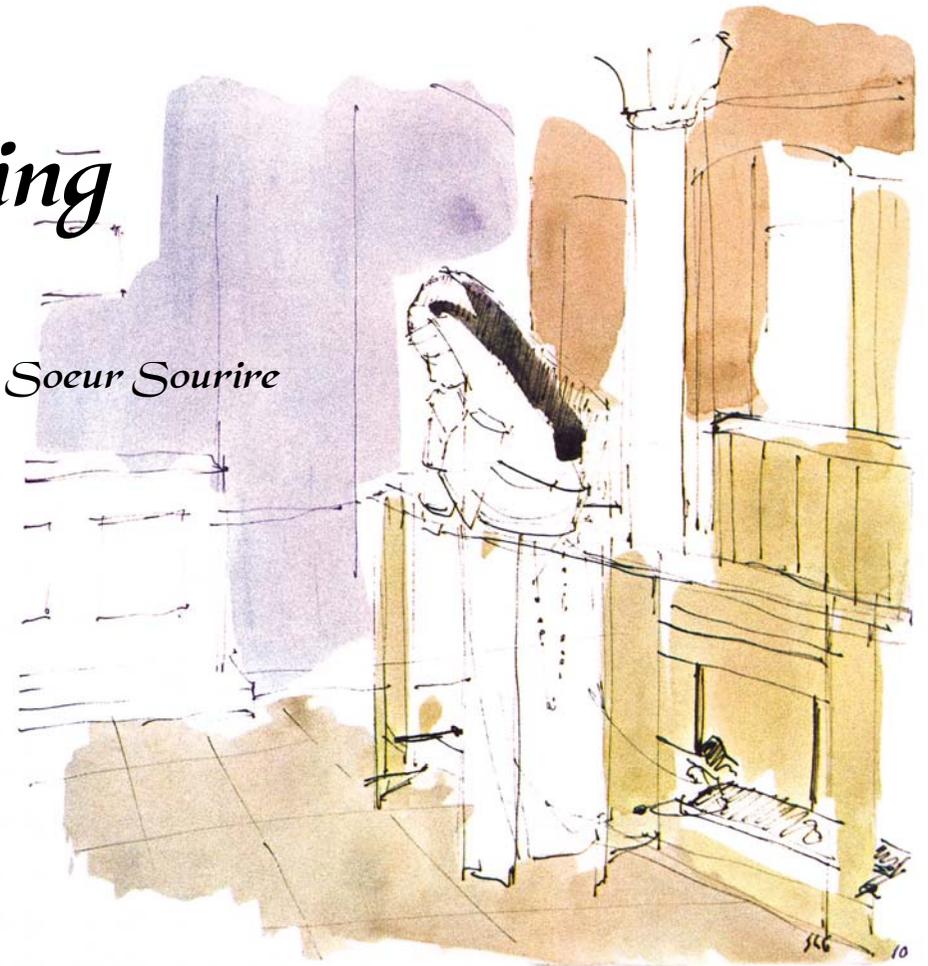
단절 위기를 맞았던 빈 오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영상 자료다. 이 극장은 오는 9월 19~20일 예술의전당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콘서트 형식으로 올리며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김성현 기자

동영상 chosun.com

The Singing Nun

Soeur Sourire



60년대 빌보드 차트 1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를 눌렀던 바로 그 노래들



수에르 수리르

The Singing Nun _ 노래하는 수녀

- 70년대 번안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던 타이틀곡 '도미니크'
- 방송에 나오면 문이 쇠도했던 노래들. 하지만 정작 구할 수 없었던 음반
- 4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
-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재킷 프랑스어 가사와 한글 번역 포함
- 수녀의 생활모습을 그린 여러 스케치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in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LIVE RECORDING

중견 피아니스트 유미정이 읽어주는 슈베르트의 영혼



Spirit of Schubert

미국 피바디 음대와 예일 음대에서 공부했고, 국내의 수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는 단국 음대 피아노 교수인 유미정의 매혹적인 슈베르트 음반.

음원은 2006년 늦가을 금호 아트 홀에서 슈베르트의 음악만으로 공연했던 내용이다. 유명한 D.664 소나타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가지고 천재의 '순수영혼'을 날날이 읽어준다.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아름다운 모차르트 음반을 내놓은데 이어, 인상적인 슈베르트 음반을 출시하였다. 이번 음반에는 그 유명한 A major sonata에서 시작해 그의 몇몇 후기 작품들, 그리고 뛰어난 가곡, 편곡들에 이르기까지 슈베르트의 다양한 천재성에 대한 유미정의 이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담겨져 있다. 이 슈베르트 실황 음반은 듣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쁨을 선사하리라 확신한다.”

- Peter Frankl

“피아노와 음악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진 열정적 연주이다.”

- Fernando Lairez



표지사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8월호
통권 제 25호 발행 : 2007년 7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